

# 2002년 국내 항공우주산업 일지

## 1월 14일~2월 4일

국방부, F-X사업 3차 19회에 걸쳐 가격경쟁 실시

## 2월 7일

교통개발연구원 '국내선 항공운송사업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운송사업이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2월 15일

산림청, 산불 공중감시용 항공기 L 410 취항식. 산림청은 L 410을 비롯 M20R, Hughes 500D, Bell 206L-3, AS350-B2, Ka-32T, S-64E 등 총 3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산림보호에 핵심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

## 2월 26일~3월 3일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시아 에어로스페이스 2002(Asian Aerospace 2002)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LG상사 등이 참여. AA2002 기간동안 KT-1 기본훈련기는 매일 한차례씩 급상승, 급강하, 급선회, 저고도비행, 배면비행 등 훈련기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비행능력을 선보이면서 세계무대에 데뷔함. 또한 AA2002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 마틴사는 이스라엘의 IAI사와 'T-50 고등훈련기 이스라엘 수출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기 교체기종 선정시 T-50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추진, 협력토록 함. 위아(주)는 AA2002에서 2006년까지 프랑스 메시어 다우티사에 A340-600 랜딩기어 88대(12.5억달러 규모) 공급계약

## 3월 2일

한국공항공사 출범. 김포공항 등 전국 16개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항공단이 20여년간의 공단체제를 마감하고 공기업 민영화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형 공사로 새롭게 출범

## 4월 1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A380 주날개의 일부인 날개 하단 구조를 1억달러 수출계약

## 4월 19일

차기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 선정. 5조 8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총 40대의 첨단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미국 보잉사의 F-15K 기종을 선택한다는 국방부의 발표로 일단락됨.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로 F-15K, 엔진에는 GE사의 F110-GE-129가 선정됐다고 발표함.

## 5월 8일~9일

공군, 제8회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항공전략 사상 및 이론의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 공군의 항공전략 및 교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전략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려 국가간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항공우주시대에 공군력의 역할을 조명함.

## 5월 9일~10일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소방용 봄바디어 415 수륙양용기, 서울의 한강,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에서 시범비행 실시

## 5월 18일~19일

2002 광 국제버드맨 대회 개최.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창의력과 기술력을 발휘해 직접 제작한 글라이더로 거리기록을 겨룸. 우리나라에서는 울산대, 항공대, 조선대, 에어로케이, 한서대, 현대고 등 14개 팀이 참가함.

## 5월 20일

국방부, F-X 기종으로 결정한 F-15K의 가격, 질충교역, 후속군수지원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미 보잉사와 추가협상 결과 공식발표. 기계약 금액 42억 6천4백만달러로 조정, 합의함.

한·이스라엘 항공우주 공동연구개발사업 세미나 개최. 국내 항공우주 관계자 및 이스라엘 IAI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와 UAV에 대

해 중점적으로 발표됨.

**5월 21일~22일**

한·불 우주기술과 응용분야에 관한 세미나 개최. 위성과 텔레콤, 과학위성, 위성응용, 발사체, 우주센터, 우주분야의 전망에 관해서 진행됨.

**5월 2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내 항공방위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세미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의 협력강화, 항공기사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 F-X사업의 성격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됨.

**5월 30일**

대한항공, B777-300ER 개발프로그램에 참여. B777-300ER 장거리 여객기의 날개 연장부위 및 윙팁을 설계, 제작해 공급하는 2백50억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함.

**6월 5일**

프랑스 다쏘사, 기자회견을 개최해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수주경쟁에 불참의사를 밝힘.

**6월 11일**

대한항공, 미국 Vought사와 공동으로 B767 후방동체 제작사업 참여. 총 사업규모 5천5백만달러에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년으로 전세계 유수의 항공기 부품제작사들과 공개경쟁에서 수주에 성공함.

**6월 20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 개최.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의 장단기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전략을 모색,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경쟁력 강화추진팀을 운영하면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 시행하기로 함.

**6월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부,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 사업 계약체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스마트 무인기 기술개발사업은 향후 3년동안 신개념 비행체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풍동시험 모델을 제작해 시험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함. 2008년말에는 시제기를 제작해

시험비행에 들어갈 계획이고 이어 2011년까지 스마트무인기 기술을 실증해 보일 계획임.

**7월 12일**

밀스엔지니어링(대표 이명준),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아리안 5 로켓 발사체용 텔레메트리(Telemetry) 시스템 공급.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로켓의 각종 데이터를 무선으로 지상에 송신하는 원격데이터 송신시스템임.

**7월 14일~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T-50 참여업체 심포지엄 개최. T-50 사업의 주체인 공군과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국내외 70여개 기관 및 업체의 대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50의 대량 생산 추진계획, 수출전략,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개선방안 등을 논의함.

**7월 23일**

항공기 부품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는 우리나라 항공기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과 전략수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7월 22일~28일**

영국 판보로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보잉사와 9천만달러 규모의 F-15K 전투기 날개 및 전방동체 수출계약 체결. 또 이번 판보로에어쇼에서 한국 공군은 미 레이시온사와 F-15K에 탑재할 A-120C AMRAAM과 AIM-9X 사인드와인더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하니웰사도 F-15K용 GPS와 INS를 포함하는 예비오닉스, 엔진 시스템, 바퀴 및 브레이크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

**7월 23일~29일**

오시코시 에어쇼 2002(Oshkosh Airventure 2002)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4인승 선미익 항공기 반디호(Firefly) 출품. 반디호는 2003년까지 양산체계를 갖추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북미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예정

**7월 30일**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 실현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함. 특히 항공산업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헬기, 훈련기 수출국으로 도약하며 세계 10위권의 항공업체로 육성하겠

다는 것과 우리나라를 항공전자 등 주요 부품의 세계 공급 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제시

**8월 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출범 3년만에 흑자전환 성공.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당기순이익 1백61억원, 매출액 5천1백73억원, 영업이익 3백22억원을 기록함.

**8월 12일**

항공안전본부 출범. 건설교통부 산하에 새로 생긴 항공안전 본부는 항공기 운항, 정비, 관제, 통신 등 항공기술업무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인천공항 건설, 기존 공항의 개량·확충 등의 일을 맡게 됨. 독립된 권한을 가진 항공청의 설립을 바라던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4급 이하 직원의 채용과 예산권 및 정책결정권을 지니게 되는 항공안전본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는 큼.

**8월 20일**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초도비행 성공. 8월 20일 오후 4시 20분부터 40분간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실시된 T-50(일명 골든아글) 고등훈련기의 최초 성능 시험비행에서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비행성능 평가의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항공기가 국가 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해 이번 시험비행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함.

**8월 24일**

제1회 건국대학교 마이크로 로봇비행체 경연대회 개최. 마이크로 로봇비행체를 설계, 제작하고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의 경연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초소형 비행체의 개발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와 한국모형항공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됨. 27개 참가팀이 탑재비행과 정찰임무, 설계보고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룸.

**8월 29일**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자사의 제1공장내 1만4천평 부지에 항공기와 전자 등을 전시하는 야외전시장과 약 300여평 규모의 실내전시관을 갖춘 항공우주박물관을 개관함.

**8월 30일**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추진. 7조원대의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이 본격적 추진이 결정됨.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각종 헬기를 대체할 이 사업은 육, 해, 공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노후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로 2010년부터 대체하는 사업. 이 사업은 개발비만 최대 1조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5~6조원대에 이르는 물량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방위력 증강과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용이한 국내 최대 방위산업 프로젝트

**9월 14일**

오산 미 공군기지, 공군력의 날(Air Power Day)을 맞아 지개방과 에어쇼 행사 개최. A/OA-10, E-3 센트리, F-16C, C-130, KC-135, CH-47D, UH-60A, OH-58D, AH-64D 등의 미군기와 KT-1, F-5E 타이거 II, F-4E, A-37B 등의 우리나라 항공기 전시

**9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민수 회전익 항공기인 Bell 212/214 동체 주요 구조물 수출 1억달러(500대) 달성

**9월 26일**

첫 여성 전투조종사 탄생. 21개월간의 초등, 중등, 고등 비행훈련과정을 모두 마치고 우리나라의 첫 여성 전투조종사로 탄생함. 비록 군사 선진국에 비교하여 여성 전투조종사의 탄생은 조금 늦었지만 미국, 영국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3번째로 많은 수의 여성 전투조종사를 보유하게 됨.

**10월 5일~6일**

제1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 국내에서 개최된 첫 무인항공기 대회로 국내 항공전자 및 항공시스템의 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데 대회개최의 의의를 두며 로봇항공기 자동비행 경연대회와 부대행사로 무선조종항공기 항공촬영 경연대회가 실시됨.

**10월 16일~18일**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 21세기 항공우주정책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1,000여명의 국내외 항공우주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공군과 항공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개최함.

### 10월 17일~19일

지상군 페스티벌 2002 & 벤처국방마트 2002 개최. 지상군 페스티벌 2002는 육군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소개했고 벤처국방마트 2002는 국내 최대 국방기술 교류의 장으로 153개 기업이 참여해 첨단기술을 선보임.

### 10월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T-50 초음속 항공기 초도비행 성공 축하행사 거행

### 10월 31일

제주도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제주도는 자본금 2백억원의 주식회사 형태로 가칭 (주)제주지역항공사 설립계획을 확정함. 초기에는 터보프롭 항공기 5대로 서울, 광주노선을 운항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채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추후 비행기 대수를 10대로 늘리고 노선망을 확장해 나갈 예정

### 11월 4일~10일

주하이 에어쇼 참가. 중국 주하이에서 개최된 Airshow China 2002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삼성테크윈(주), (주)대한항공 등이 참가함.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브라질의 항공우주산업체인 엠브레어사와 코리아에어쇼 실내부스 계약을 체결함.

### 11월 7일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발전모형을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

### 11월 8일

T-50 시제2호기 초도비행 성공.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이 탑승한 T-50 2호기는 오전 9시 58분에 이륙하여 항공기 계기점검 및 기본성능시험 등 계획된 임무를 완수하고 사천비행장에 안착함.

### 1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 시행사 선정. 11월말 계류장 부지조성직업 착수를 시작으로 2단계 사업 본격화. 2단계 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4조 7천32억원을 투입, 2백5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활주로 1본, 탑승동 1동, 계류장 36만5천평과 기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하게 됨.

### 11월 17일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별세.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인은 1920년 서울 서대문구 미군등에서 수송업체인 한진상사의 간판을 내건 뒤 수송사업을 펼쳐옴. 이후 미군 군수물자들을 수송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현재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21개 계열사를 가진 자산 24조원 규모(세계 8위)의 그룹으로 성장시켜 왔음.

### 11월 28일

국내 독자 개발된 액체추진 과학로켓 시험발사 성공. 액체추진 과학로켓 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7백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임. 이 로켓은 길이 14m, 직경 1m, 총중량 6톤, 추력 129톤의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발사를 통해 100% 국내기술로 개발된 액체추진 과학로켓의 주요 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며, 입증된 핵심기술을 토대로 2005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 12월 17일

KT-1B 초도비행 성공.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개발해온 KT-1B 훈련기의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국 이래 최초로 국산항공기 수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됨. KT-1B 수출1호기는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항공기 성능시험과 신개발 항전계통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행을 수행하게 되며, 이후 생산시험비행과 정부확인 시험비행을 거친 다음 인도네시아로 납품하기 위해 2003년 5월말에 선적하고 1차 계약분 7대 전량을 11월까지 인도하게 됨.

### 12월 16일

항공센터 착공. 전남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 간척지구에 비행선 및 무인비행기 제작과 비행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항공센터가 착공되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03년 7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71억원을 들여 소형기 및 비행선용 격납고 1채와 주기장, 유도로, 내부도로 등을 갖출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2005년까지 5백억원을 투입, 중형 비행선용 격납고 1채를 건설하고 원격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비행선 등을 개발할 예정